

## 사슴의 外傷性胃炎

成 裕 錫

昌慶苑 動物園 動物病院

요즈음 사슴을 鹿茸採取目的으로 사슴 농장에서 飼育하는 경향이 늘어감에 따라 차츰 家畜化되어 가는 반면 野生에서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疾病이 發生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가장 치명적인 疾病이 外傷性胃炎으로 앞으로 우리 나라의 사슴 농장에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리라 생각된다. 임상경험을 통해 보면 어린 사슴보다는 성숙된 사슴에서 多發하는 데 사슴 농장에서 5년 이상 사육되어 온 사슴의 경우는 대부분 胃상성위염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原因은 飼料를 먹을 때 함께 취식된 異物이 제 1위내에 정체하여 傷害를 가하여 炎症狀態를 유발하거나 또는 穿孔을 일으키므로 발생되는 데 예로는 胃運動에 의하여 제 2위에 예리한 金屬片이 정체하여 胃粘膜炎을 損傷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傷處가 一部分에 局限되었을 경우는 쉽게 治療될 수 있으나 妊娠中이거나 혹은 分娩時, 鹿茸採取時, 移動時 등에는 특히 左右의 腹壁이나 胸部에 壓迫을 가함으로써 外傷性胃炎의 發生을 더욱 가속화시켜 惡化된다.

5년 이상된 사슴이 斃死한 경우 胃內를 검사한 결과, 直接的인 斃死의 原因이 아닐지라도 예리한 金屬片이나 비닐 등과 같은 異物은 90% 이상 발견되었으며 특히 철사, 못 등에 소홀히 한 養鹿場이나 나이 많은 사슴을 飼育하고 있는 農場에서는 특히 유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증후를 보면 異物體가 部分的으로 病害를 주었거나 異物의 계속적인 蓄積으로 因하였을 경우는 初期에 消化不良症勢를 나타내며 食欲이 떨어지고 우울증을 나타내고, 등이 구부러지며 皮毛가 거칠어지는 등, 一般的인 疾病의 初期症狀과 비슷하나 慢性的으로 이환된다.

그러나 긴 銳利한 金屬片이 胃粘膜炎을 뚫고 病害를 주었을 경우는 腹膜炎을 일으키거나 간혹 心臟에 損傷을 입혀 心囊炎으로 併發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경우의 정후를 열거해 보면 ①분명한 이유 없이 消化不良症의 症候를 급작이 나타내며 反跳作用이 미약해진다. ②관능적으로 活動하기를 기피하며 橫臥姿勢를 좋아한다. ③항상 침울하며 등을 꾸부리는 경우가 많다. ④起立活動이 부자연스러우며 특히 뒷다리의 경쾌한 步行狀態를 볼 수 없다. ⑤呼吸 및 心音が 不規則하며 體溫은 높은 편이다(40°C 이상). ⑥下痢便은 없으나 便의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⑦胸腹部를 打診하면 몹시 불안해 하며 뒷다리를 쳐들고 뛰려고 한다.

위와 같은 外傷性胃炎의 징후가 나타나면 빨리 확진을 얻어 第1胃 切開術을 실시함이 가장 효과적인 治療方法으로 생각된다.

임상경험을 통해 필자는 外傷性胃炎의 확진을 내려 數次에 걸쳐 第一胃 切開術을 실시하여 치료에 좋은 成果를 올렸음을 부연하며, 임상예를 들어 보고자 한다.

1978년 2월 어느 날,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의 일이다. 서울 근교 Y라는 農場으로부터 급작이 전파가 걸려왔다. 일찌기 친교한 사이인 Y氏는 급한 나머지 사슴이 아프니 무조건 빨리 와달라는 부탁이었다. 농장에 도착하여 사슴을 관찰해 본 결과 사슴의 증후는 다음과 같았다.

반추작용이 거의 없었으며 청진시 胃底部의 飼料를 消化시키고자 하는 胃運動은 청진되었다. 그러나 운동 기피현상이 뚜렷하였고 皮毛가 거칠며 등이 구부러진 상태로 疼痛을 호소하는 듯 하였다. 또한 呼吸音과 心音が 不規則하여 예후가 불량하였다.

이상과 같은 임상증상을 토대로 外傷性胃炎이란 診斷을 내리고 畜主人 Y氏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였고 조속히 手術을 시도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Y氏는 手術까지 해야 한다는 엄청난 사실 때문인지 반신반의하였으며 일반적인 치료로 회복되기를 기원한 채 결단을 못내리고 時間만 흘려 보냈다. 결국 2日後 그 사슴은 斃死하였으며, 異物이 停滯되었다는 獸醫師

의 診斷을 再確認하려는듯 사슴의 배를 갈라 내장을 통째로 비닐에 싸가지고 當病院을 찾아 왔다. Y氏가 지켜보는 가운데 胃內容物을 調査한 결과 第一胃內에 비닐이 뚫뚫 뭉쳐 엉켜진 異物(사무실 청소용 봉걸레의 크기)이 발견되었으며 第2胃의 粘膜은 充血되고 壞死 직전에 있었다.

직접 눈으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Y氏는 후회의 빛을 띄우며, 그제서야 飼料로서 급여한 짚 다발이 가는 비닐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을 썰어서 給與하였음을 진술하면서 이것이 消化되지 못하고 위 내에 정체되어 있을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자기의 실수를 시인하였다. 또한 Y氏는 앞으로 獸醫師의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나머지 사슴들의 사후대처를 염려하여 診療를 요청해 왔다.

결론적으로 임상경험을 통해 본 소견은 만일 나이 많은 사슴의 경우에 外形的으로 外傷性胃炎의 증후를 나타내지 않았을지라도 第一胃切開術로 축적된 異物이나 작은 철사, 못 등을 제거해 주면 사슴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뿐 아니라 이러한 시술은 건강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만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슴의 건강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외상성위염의 경우는 消化管을 刺戟시키는 下劑를 복용시켜서는 안 되며, 一般의인 症狀으로 심한 損傷을 받지 않은 상태의 局限性疾病일 경우는 자연요법으로 安定을 유지시키면서 對症療法을 이용하면 수술에 의하지 않고도 治療가 가능하나 症狀이 더 惡化되었을 경우에는 빨리 切開術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